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월호
Vol. 623



Contents

MAGAZINE 2024 vol. 62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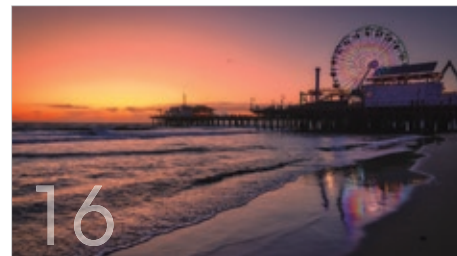
12

INSIDE BCCI

- 04 2024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 06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08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 주요 사업성과

취향저격

- 12 역사 속 부산
부산에서 한국의 고흐 이중섭을 만나다
- 16 힐링 여행지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 여행
- 20 문화의 향기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도전을 보여주는 영화
- 24 고전 속 지혜
이효리 브랜딩 수사학



16



20



26



32



36



28

소통공간

- 26 STORY OF 캡틴장
- 28 기업포커스
삼원ACT(주)
- 32 LOOK AT ME
엘이디소프트

트렌드 토크

- 36 골프 트렌드
- 청도로 떠나는 골프 여행
- 한국 골프의 청출어람

경제 인사이트

- 40 Insight for CEO
2024년 경기침체와 자산버블 사이에서
- 42 웹툰으로 보는 경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44 지식의 창고

멤버스 라운지

- 46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 48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방문교육 지원 안내



부산상공회의소 Show
바로가기

발행일 2024년 2월 5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편집·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부산상공회의소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YouTube



Instagram



facebook



2024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31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2024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Busan is Beginning

2024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주요 기업인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정계·재계·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Busan is Beginning'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최되었다.

지역 경제계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장인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부산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도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하고 부산시와 정치권에서 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계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부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산업과 관광·마이스 산업의 육성에 지역 경제계는 당연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 유치로 부산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하는 장인화 회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비전 제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미래 비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기 위해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과 기업, 자금이 함께 몰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올해 상반기 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브리핑 이후에는 주요 참석인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세리머니가 진행되었다.



브리핑을 하는 박형준 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세리머니



김형오 전 국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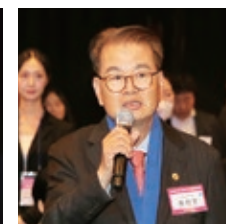
서병수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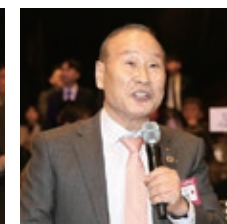
하태경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권혁은 IS동서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세리머니 이후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서병수, 하태경, 전봉민 국회의원과 권혁은 IS동서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덕담 및 건배 제의를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는 주요 참석자들이 다함께 무대에 올라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부산 갈매기’를 합창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조속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부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장인화)와 부산광역시의회가 1월 29일(월) 오후 5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결집하고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이사 9명 전원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7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부산시의회 합심하여 지역사회 차원 추진협의회 결성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는 올해 첫 삼을 뜨는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항공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로 에어부산의 경쟁력과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라는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형성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 역할 가능한 지금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 촉구 추진협의회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 결의문 발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힘으로 만든 에어부산을 부산의 품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과는 별개로 에어부산의 조속한 분리매각 추진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통합이 완료되면 분사위치,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에 대한 결정권은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만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주도한 당사자인 산업은행이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현 통합과정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역할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인사말을 하는 장인화 회장

“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을 위해 두 항공사의 화물부분과 장거리 주요 노선을 국내 LCC 경쟁사들이 인수하게 되면 모기업 합병지연으로 기존 노선마저 줄어들고 있는 에어부산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여론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는 조속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고 릴레이 기고, 양당의 4월 총선 공약 채택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 2, 3 회의를 진행하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이사들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기념촬영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 주요 사업성과



01 부산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 적극 추진
제24대 의원부는 지역경제의 미래로 여겨졌던 2030 월드엑스포 유치활동을 필두로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같은 부산경제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3년간 부산 경제의 발전과 지역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3년간 부산상공회의소 24대 의원부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통한 부산 도시 브랜드 위상 강화



경제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대회(2022. 4.)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엄지척 오디션(2022. 4.)



부산세계박람회 BIE 총회 연계 유치 교섭단(2022. 12.)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제작(2023. 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기업 기부금 전달(2023. 4.)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단 제172차 BIE총회 참가(2023. 6.)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2023. 9.)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초청 특별 강연 개최(2023. 4.)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결기대회(2023. 11.)

부산상의-부산시 TF 및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



에어부산 분리매각 협조 요청문 전달(2023. 12.)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2024. 1.)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및 2029년 개항 추진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이사회(2023. 9.)



통합LCC 본사 부산유치와 지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22. 11.)

지역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을 통해 스타트업의 후견인으로서 선배 기업의 역할 강화



부산 스타트업 데이 99도 개최(2021. 12.)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도 개최(2022. 10.)



2023 SLUSH'Dx99C 개최(2023. 6.)

02

부산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지역경제 혁신의 마중물이 될 스타트업 지원 브랜드 99C를 신규로 만들어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ESG 경영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내 ESG 경영의 저변 확대에 선제적으로 힘써왔다.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기업들의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 추진



ESG 상생협력 확산과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2023. 6.)



부산기업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 결과보고회(2023. 12.)



박형준 부산시장 초청 정책간담회(20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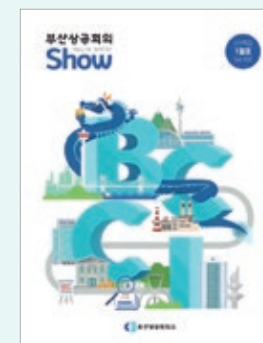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2023. 3.)

04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상공회의소 이미지 제고

뉴미디어 시대에 부산상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였으며, 기존에 분기별로 발간되는 '부산상의'를 월간지로 확대 발간하면서, 제호도 '부산상공회의Show'로 바꾸어 회원기업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부산상공회의Show



공식 유튜브 운영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

03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정부, 국회, 부산시 등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건의해왔으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재적소에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기업애로 현장 방문만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지역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2023. 4.)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 개소식(2023. 5.)



이중섭 문화 거리 입구



1 이중섭의 작품들로 채워진 계단
2 이중섭의 작품들로 채워진 벽면들

불운했던 일생은 한국인의 정서속에 그를 더욱더 강하게 자리 매김하게 하였다. 그런 그의 흔적이 제주도과 통영 외에도 부산 범일동에 남아 있다.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민족교육의 산실인 오산학교 재학시절 예일대 수석졸업의 서양화가 임용련을 스승으로 만나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37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이중섭은 동경문화학원에서 다양한 서양의 화풍들을 접하며 수학했고 훗날 부인이 될 마사코(한국명 이남덕)를 만난다. 1944년 이중섭이 귀국한 이후 영영 이별인줄 알았던 두 사람은 1945년 마사코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고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 이남덕과의 슬하에 태현과 태성 두 아들을 낳게 된다. 원산사범학교 미술교사 재직시절 6·25 전쟁이 터지고 1·4후퇴 때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란을 와 적기피란민수용소(우암동)에서 잠시 머물기도 했지만 1951년 1월 제주도로 건너가 그해 12월까지 서귀포의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곳이 지금의 이중섭 주거지,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서귀포의 이중섭 거리'이다. 제주에서의 생활도 편하지는 않았다. 1.5평도 안되는 좁디좁은 방에 네 가족이 함께 생활을 했고 늘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게'는 바닷가에서 늘 잡아먹었던 게에 대한 미안함이라고도 한다.

부산에서 한국의 고흐 이중섭을 만나다

글·사진. 손민수 여행특공대 대표

부산에서 우연히 이중섭 거리를 만나다

아주 오랜만에 옛 보림극장 옆 60년 전통 할매국밥집을 찾았다. 몇 년전인가 백종원이 나오는 음식프로그램에 할매국밥이 소개된 이후 점심때면 문전 성시를 이뤄 한동안 잇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이 가고 싶다는 말에 할매국밥을 찾았다. 역시나 오랜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다. 뼈가 아닌 살코기를 우려낸 맑은 육수에 두툼하고 투박하게 잘린 수육이 여전히 예전 맛을 자랑하고 있었다. 뜨끈해진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서는데 전에 없던 '이중섭 거리' 간판을 향해 지인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필자를 바라본다. 이중섭 거리?

이중섭도 몰랐던 이중섭의 삶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화가를 따진다면 단연 으뜸은 이중섭일 것이다. 황소그림, 은지화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도 작품이지만 6·25전쟁과 피란, 가난한 삶속에서 펼쳐진 가족과의 사랑과 이별과 그리움,



부산으로 돌아온 후의 이중섭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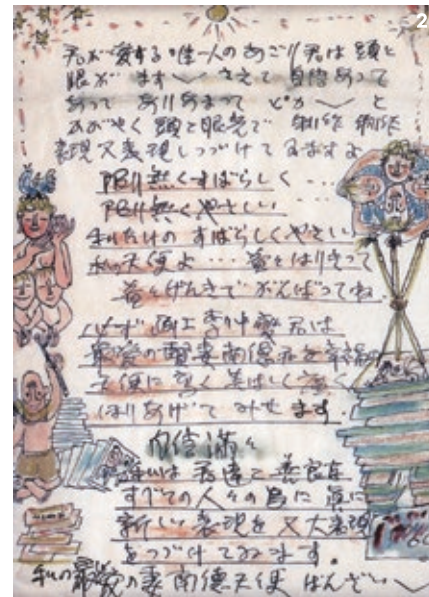
1951년 12월 제주생활을 접고 이중섭은 부산으로 다시 건너온다. 당시 귀환동포마을이 있던 범일동 1497번지에 판잣집을 얻어 피란생활을 이어나갔고 생계를 위해 영도 대한도기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부산생활도 녹록지는 않았다.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재료나 물감을 살 수도 없어 담배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그의 ‘은지화’를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야 했던 그의 열정이자 재료와 기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정신이라고도 표현한다. 모질었던 피란생활은 마사코에게 결핵을 아이들에게는 영양실조를 안겼고 1952년 6월경 장인의 사망과 유산정리 소식에 마사코와 아이들을 살리고자 일본으로 보냈다. 가족과 헤어진 뒤 이중섭의 외로움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일본에 보낸 편지만 100여 통이 넘고 편지에 그림을 그려 동봉하기도 했다. 그의 ‘편지화’만 보더라도 마사코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진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림은 생각처럼 팔리지 않았다. 심지어 마사코와 장모에게 지인이 사기를 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원증을 구해 고향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마지막 인줄 몰랐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기만 했고 그리움은 건널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 생을 마감한 이중섭

작품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돈을 모아 다시 일본으로 가야했지만 세상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서울에서의 전시는 호평에 그림도 많이 팔린 듯 했지만 값지 않는 외상으로 남은 것이 없었고 대구에서의 전시는 ‘은지화 훈화’ 논란과 싸늘한 반응으로 상처가 더욱 컸다. 모든 것이



이중섭이 죽음을 앞두고 그린 마지막 그림 '돌아오지 않는 강'



1 은지화 '뒤엉켜 노는 아이들'
2 마사코(아내)에게 보낸 이중섭의 편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를 시기하던 이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낮이 나간 이중섭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 당하기도 했다. 간염과 거식증으로 식음을 전폐한 이중섭은 마사코가 보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답장을 쓰지도 않은 채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사코, 정말 외롭구려. 소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안간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소"라는 마지막 엽서 한장을 마사코에게 보내고는 1956년 9월 6일 마흔하나의 나이로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자로 홀로 생을 마감했다.



범일동에 위치한 이중섭 전망대의 모습

범일동에서 다시 살아난 이중섭

범일동 이중섭 거리는 범일동 할매국밥 앞 초입에서 이중섭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약 400여 미터의 길로 2014년 5월에 조성되었다. 범일동 1497번지 판잣집에 살았던 이중섭과 그의 명작중 하나인 '범일동 풍경'이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되어 이중섭을 부산에서 살려낸 공간이다. 웅벽과 거리 곳곳에는 이중섭의 대표작과 그의 생애가 새겨져 있다. 희망 100계단 앞에 서니 이중섭이 계단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일까? 한쪽은 미소 띤 얼굴이고 한쪽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계단의 난간은 엽서화와 은지화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을 100여장도 넘게 타일에 새겨 놓은 난간갠러리다.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이중섭전망대에 오르면 마사코와 주고받은 편지글에 다시한번 마음이 아파온다. 맞은편으로는 이중섭의 시절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 삶을 기억하는 안창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문득 웅벽에 새겨졌던 김춘수의 시 '내가 만난 이중섭'이 떠오른다.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 사라지고 있었다 / 눈을 찧고 보아도 / 길 위에 /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 한참 뒤에 나는 또 /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 이중섭을 보았다 /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 동경에서 아내 오지 않았다고 / 2022년 8월 13일 7년을 함께 살았고 70년동안 이중섭을 그리워했던 마사코도 이중섭과 영원한 만남을 위해 영면에 들었다. 📖



이중섭 문화거리 곳곳에 전시되어있는 이중섭의 작품들



미국 서부의 중심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 여행

글·사진. 문철진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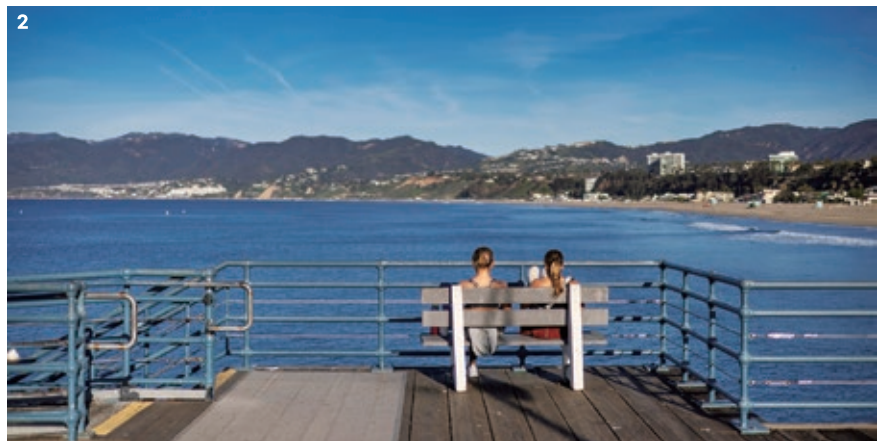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는 풍부한 햇살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로스앤젤레스는 온화한 기후가 일년 내내 펼쳐져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말리부와 롱비치, 산타모니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해변이 즐비하다. 로스앤젤레스는 또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할리우드 인근의 비버리힐즈는 유명 영화배우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인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비롯해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도 6곳에 이른다. 무엇보다 로스앤젤레스는 60만이 넘는 한인 교포들이 살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도 친숙한 도시다.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고 한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2월은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할 최적의 시기다. 로스앤젤레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해야 할 7가지를 소개한다.

- 1 산타모니카 피어
- 2 산타모니카 해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황홀한 일몰 만나기

1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산타모니카는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해변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까지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66번 국도의 종착점이자 시작점이기도 하다. 드넓은 바다를 따라 해안선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온화한 날씨 덕분에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연중 북적인다. 해변 가운데에 있는 산타모니카 피어는 서부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부두이기도 하다. 대관람차와 롤러코스터 등 몇 가지 놀이기구를 갖춘 '피시픽 파크'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이다. 산타모니카 해변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해질녘이다. 둥근 태양이 태평양에 풍덩 빠진 뒤 온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황홀한 일몰은 산타모니카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2



3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바라본 로스앤젤레스
4 그리피스 천문대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로스앤젤레스 한눈에 내려다보기

2

영화 '라라랜드' 촬영지로 유명세가 높아진 그리피스 천문대는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다. 할리우드산 자락에 위치해 로스앤젤레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기 때문이다. 아르데코 풍의 천문대에 오르면 건물로 빼곡한 도심부터 멀리 태평양까지, 막힘없는 시야에 가슴이 뻥 뚫린다. 도심의 조명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우주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구경하거나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찰할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인 할리우드 사인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할리우드 거리에서 영화 주인공 되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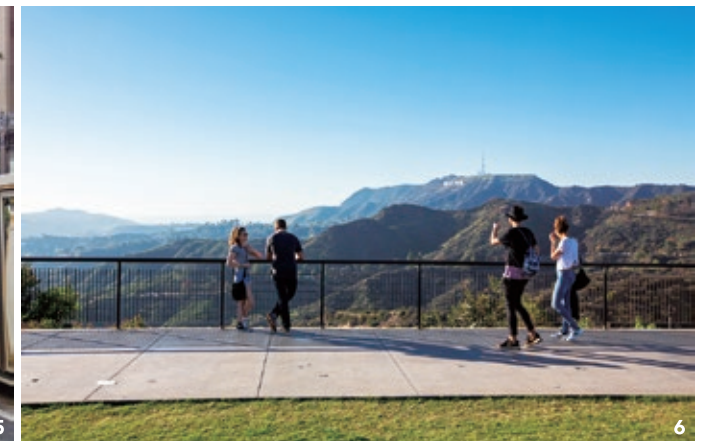
3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인 로스앤젤레스. 그 중에서도 영화사와 영화관이 가득한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인 돌비 시어터가 위치한 거리 '워크 오브 페임'은 각종 거리 공연과 퍼포먼스, 투어 상품 등으로 365일 시끌벅적 하다. 아이언맨과 슈퍼맨, 마릴린 먼로 등 영화 속 주인공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나 흥을 돋운다. 바닥에 새겨진 수많은 영화 스타들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찾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5 워크 오브 페임
6 할리우드 사인



5



6



미국적인 전통시장
파머스 마켓 구경하기

4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싶다면 시장이 제격이다. 비버리힐스 동쪽 패어팩스 지구에 자리한 파머스 마켓은 투박하면서도 정겨움이 느껴지는 시장이다.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이 근교 농장에서 직접 기르거나 만든 농산물이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피자와 스테이크, 바베큐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파머스 마켓과 붙어 있는 '더 그로브 몰'도 놓치지 말자. 유럽풍의 카페와 분수, 건물 등 테마파크 처럼 꾸민 쇼핑몰은 곳곳이 사진 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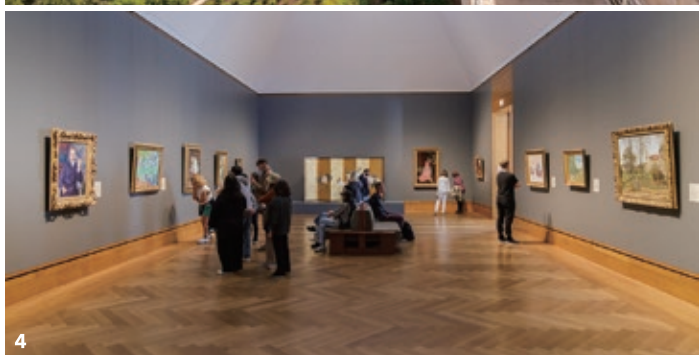
1 파머스 마켓
2 더 그로브 몰

게티 센터에서
세계적인 명작 감상하기

5

로스앤젤레스에서 딱 한 곳만 가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게티 센터'를 꼽는다. 로스앤젤레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게티 센터는 석유 재벌인 폴 게티가 사재를 들여 만든 미술관이다. 여러 동의 건물은 다양한 미술품들로 채워졌는데, 세잔과 고흐, 마네, 램브란트 등 미술책에서나 봤던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대거 전시하고 있어서 미술 애호가라면 하루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곳이다. 건물 사이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휴식 공간, 카페 등이 자리하고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곳곳에 있어서 도무지 지루할 틈이 없다.

3, 4 게티 센터



5, 6 인 앤 아웃 버거

가장 미국다운 맛
'인 앤 아웃 버거' 즐기기

6

미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햄버거다. 햄버거의 고장답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양한 햄버거 체인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파이크 보이즈'가 동부를 대표하는 버거 브랜드라면 '인 앤 아웃 버거'는 서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냉동이 아닌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햄버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패스트푸드 이상의 품질이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20%를 훌쩍 넘는 팁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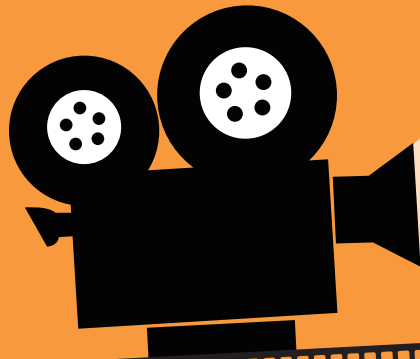
7 디즈니랜드 애너하임
8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동심의 세계로 풍덩!
테마파크 즐기기

7

로스앤젤레스에는 무려 6개의 테마파크가 있다. 무려 100년 전, 월트 디즈니가 처음으로 만든 디즈니랜드인 '디즈니 애너하임'을 비롯해 영화를 테마로 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무시무시한 롤러코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식스플래그' 등 테마파크만 둘러봐도 일주일도 훌쩍 지나간다. 디즈니 만화영화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디즈니랜드에서 동심을 되찾아 봐도 좋다. 영화광이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달려가자. 특히 자동차를 타고 실제 영화 제작 세트를 구경할 수 있는 스튜디오 투어는 로스앤젤레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기에 절대 놓칠 수 없다. 📍





★ 열악한 환경에도 ★

★ 굴하지 않는 의지와 ★

도전을 보여주는 영화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시스트



특별한 여성 CEO의 위대한 실화 <조이>

워킹맘을 슈퍼우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과 가사, 육아까지 몸이 여러 개라면 좋겠다는 여성 직장인이 많다. 월급쟁이 직장인도 그러 한데, 여성 CEO는 어떨까. 평범한 여성에서 세계적인 CEO가 된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조이>(2016)을 통해 가족과 사업 모두 방향을 잃었던 여성이 어떻게 CEO가 되어갔는지,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곱씹어 보자.

인재 vs 헛똑똑이

어려선 누구나 장밋빛 꿈을 꾸다. <조이>의 주인공 '조이' 역시 꿈 많은 소녀였다. 집, 나무, 동물 등 종이접기로 온갖 것을 만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그리던 평범한 소녀 말이다. 그러나 삶은 그리 만만 하지 않다. 부모의 이혼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마저 결혼에 실패해 무능한 전남편은 그녀의 집 지하실에 얹혀살고, 시간제 일자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 두 딸의 양육과 집 담보 대출금까지 모든 것들이 조이의 어깨를 짓누른다. 감옥에 갇힌 듯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더러워진 막대 걸레를 빨며 생각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리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비즈니스의 세계로 뛰어든다. 뭐든 만들기 좋아하던 소녀의 재능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그녀는 높은 흡수력과 손을 대지 않아도 비틀어 빨 수 있는 막대 걸레라는 신상품을 구상한다. 조이의 사업 계획을 들은 투자자는 이렇게

Movie Info

개봉 2016.03.10.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코미디, 드라마
 국가 미국
 러닝타임 124분



사진출처: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말한다. 너는 사업에 재능있는 인재와 평생 신세타령하는 헛똑똑이 중 어느 쪽이냐고.

파산 신청 앞에서

신세타령이나 하는 아줌마로 살기를 거부한 조이는 본격 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 우여곡절 끝에 투자를 유치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홈쇼핑에도 진출해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트린다. 그러나 사업 역시 만만하지 않다. 사사 건건 참견하는 가족들,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장, 특허분쟁과 로열티 등 사업의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복잡한 계약으로 빚은 늘어만 가고, 급기야 그녀의 눈앞에 파산 신청서가 놓인다. 이쯤 되자 가족마저 애초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일을 벌였다고 그녀를 비난한다.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었지만, 파산 위기에 놓인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분노한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진다. 어쩌면 이 순간이 결정적인 때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타인들이 권고하는 파산 신청서를 집어들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수렁에 빠뜨린 그 서류들을 다시 손에 쥘 것이냐.

꿈이 아닌 현실

영화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을 딛고 재도약한 그녀는 성공한 CEO가 된다. 역시나 영화 같은 결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다. 1980년대까지 온갖 알바를 전전하며 싱글맘으로 살다가 막대 걸레와 얇은 옷걸이 등 창의적인 생활용품 디자인으로 성공한 CEO '조이 망가노(Joy Mangano)'가 이 사연의 진짜 주인공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끈기,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태도가 꿈같은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진출처: 이십세기폭스크리아(주)

Movie Info

개봉 2015. 10. 08.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모험, 드라마, SF
국가 미국, 영국
러닝타임 144분

극한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첫발 <마션>

파산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지구와의 통신도 불가능하다. 영화 <마션>(2015)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이 죽음의 위기, 모두가 당연히 죽음을 예상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어떤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난 여기서 안 죽어

6명의 NASA 대원이 화성을 탐사하다 강력한 모래 폭풍을 만난다. 탐사대는 긴급 탈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은 마크는 대열에서 낙오된다. 그가 죽었다고 판단한 탐사대는 화성을 떠나고, 지구에서는 그의 장례식이 치러진다. 그러나 극적으로 생존한 마크는 화성에서 홀로 눈을 뜬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30여 일의 탐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베이스캠프에서 다음 탐사대 또는 구조대가 화성으로 올 4년 후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마크는 다짐한다. “난 여기서 안 죽어.”



하루하루 극한의 생존기

이후 마크는 식물학자이자 우주인인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하루하루 극한의 생존기를 써 내려간다. 질소와 수소를 분리해 물을 만들고, 자신의 인분을 거름 삼아 화성산 감자를 재배한다. 베이스캠프에 남은 온갖 장비를 활용해 전기를 충전하고, 지구에 자신의 생존을 알리려고 노력한다. 또 어떤 인간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횡단하며 구조대와 만날 장소로 이동한다. 그렇게 그는 매 순간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남는다. 영화 <마션>은 SF 소설계의 천재 작가라 불리는 '앤디 위어'가 2014년 출판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래도 좇됐다. 그것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허탈한 욕 밖에 나오지 않는 극한의 상황임을 단번에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사숙고다. 즉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깊이 오래도록 생각해 결론에 도달하는 침착한 자세와 판단력 말이다. 영화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

그냥, 시작하라!

화성에서 500여 일을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마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NASA의 후배들에게 화성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자신도 죽음을 예상했던 그날들, 무언도 뜻대로 되지 않는 우주와 화성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냥, 시작하라!” 어쩌면 <마션>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시작, 즉 행동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절망적이고 극한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 거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 더해질 때 성공을 향한 첫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배우는 기업 브랜딩 전략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수·작가



이효리 브랜딩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토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을 할 때는 그의 에토스를 통하여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덕망 있는 사람을 더 폭넓고 빨리 믿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지식이 없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수사학』 제1권 2장 4절)

RHETORIC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수사학의 선구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전무후무한 철학자는 소피스트의 궤변을 가장 경계했다. 소피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역공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럼 너는?”이었다. 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와 같은 공격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그리고 효과도 나쁘지 않은 궤변에 속한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오점을 공격하는 방식만큼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레토릭도 없다. ‘피장파장 위기탈출’의 소피스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소피스트 궤변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기업 브랜딩이다.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전략이 통할 리 없다. 만약 경쟁사에 대해 이런 전략을 쓴다면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더 폭락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모드는 세 가지다.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 로고스는 논리적 추론력이다. 파토스는 감정적 호소력이다. 에토스는 인물과 인품의 신뢰도이다. 기업과 상품을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일단 상품과 브랜드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로고스). 감정적인 차원도 무시할 수 없다. 타겟이 되는 소비자 집단에게 브랜드 가치에 부합되는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파토스). 그리고 이보다 더 브랜드와 상품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에토스다. 브랜드의 신뢰성을 강화하면 소비자와 오랜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도’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망설이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토스’가 있는 것이다. 에토스는 ‘캐릭터(character)’다. 그리고 브랜드의 캐릭터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광고 모델’이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는 브랜드의 이미지로 투사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광고 모델에 그토록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모델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광고 모델이 대중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라면 이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효리가 각광받는 이유다. 그녀에게 대체 불가능한 스토리가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반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인기를 뒤로 하고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상대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뮤지션이었다. 그 뮤지션은 인기엔 영합하지 않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자유인이었다. 대중은 놀랐다. 놀라움은 이어졌다. 그녀는 제주도로 내려갔고, 유기견을 키웠으며, 채식을 하고 요가를 하며 유기농 콩도 재배했다. 그녀는 첫 번째 강아지 ‘순심’이 평화롭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제주도에 머물렀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녀는 <효리네 민박> 같은 유기농 청정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의 스토리는 끊어

지지 않고 이어졌다. 그녀의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다. ‘이효리 명언’도 회자된다. “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와 같은 말은 이효리도 그녀의 남편 이상순도 단번에 ‘좋은 사람’으로 등극시키고, 이 커플을 신뢰도 높은 에토스로 부상 시킨다.

그녀가 비건 브랜드 모델이 된 것은 당연하다. 그녀가 단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채식주의자는 너무 많다. 연예인 중에도 너무 많다. 이를 다 제치고 ‘이효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스토리 때문이고, 그녀의 에토스 때문이다. 그녀의 에토스에는 ‘채식’만 들어 있지 않다. 그녀가 ‘아이돌 가수’였다는 것, ‘10분 만에 넌 날 가질 수도 있어’라고 노래했던 팜프 파탈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지속가능한 비건으로서의 삶을 더 부각시킨다. 그녀는 단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단지 생태주의 실천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매력까지 지닌, 스토리가 풍요로운 인플루언서인 것이다. 브랜딩은 에토스다. 에토스는 스토리다.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이 스토리 셀링(story selling)이 되는 시대다. 브랜드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데이터보다 스토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WELCOME BCCI STORY OF 캠퍼장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캠퍼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4200

by 웹툰작가 배민기

● 2024. 1. 3. —————
Wednesday



김광희 신임 경제부시장 접견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2024. 1. 4. —————
Thursday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회장단 여러분 그동안 잘지내셨습니까^^

● 2023. 1. 9. —————
Tuesday



제12기 글로벌경제인과정 수료식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원우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2024. 1. 11. —————
Thursday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4. 1. 12. —————
Friday



2024 부산교육 신년인사회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부산 교육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2024. 1. 23. —————
Tuesday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 창립 심포지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데 다함께 노력해나갑시다.

● 2024. 1. 24. —————
Wednesday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정기총회
오늘 총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삼원액트 본사 전경

산업현장 혁신에 새로운 가치를 더 해주는 FA 솔루션 전문기업



삼원액트 배광호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공장자동화 (FA) 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공장 자동화를 통한 공정 개선이 생산 효율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비롯하여 공장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원액트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공장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대표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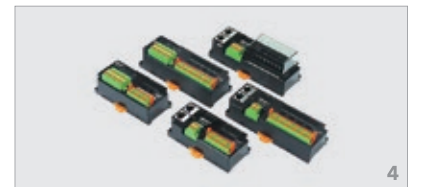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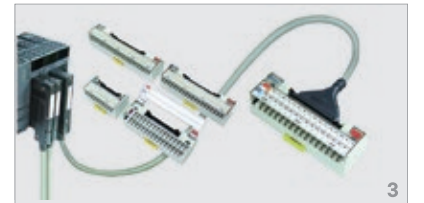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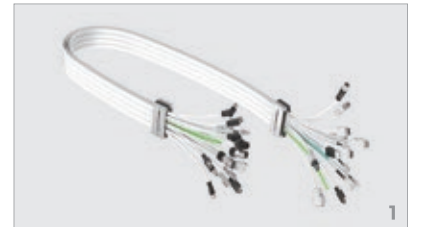


산업 전 분야 필수인 공장자동화용 전기-전자제품 생산

1999년 설립된 삼원액트는 자동차, 제철,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작 기계, 화학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인 공장 자동화용 전기, 전자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이다. 주요 생산 제품은 FA 배선절감 솔루션, FA 하네스, 산업용 네트워크 통신시스템, 무분진 가동 케이블 시스템 등이 있다. 현재 부산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과 천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도 중국, 인도, 일본, 대만, 태국 등에 현지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끊임없는 R&D를 바탕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업

삼원액트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오랜기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오던 공장 자동화를 위한 배선 절감 주요 부품들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해오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내시장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로 많은 기업들이 찾는 제품은 배선절감용 인터페이스 단자대, 배선절감용 릴레이터미널, 국내 최초 32점형 릴레이 터미널, M12센서, 액추에이터 분기보드 개발(MPA, MPB), M12 센서용케이블, 벨브플러그 케이블, 클린룸용 가동케이블 시스템 ECOFLEX 등 다수가 있다. 삼원액트는 연간 매출액의 약 2%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영혁신 TF활동을 매주 진행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특허 56건, 디자인 32건, 상표 15건 CE인증 49건, UL 인증 21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제조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위한 Use Case 공급 기업 협의체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으며,



- 1 에코플렉스 무분진 가동 케이블 시스템
- 2 FA 하네스 케이블
- 3 FA 배선절감 솔루션
- 4 IONET 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 5, 6, 7 제품생산 공정





박람회 참가한 삼원엑트 부스

다양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인증을 획득하여 관리함으로써 삼원엑트의 제품을 더욱 많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품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구매 단가 인하 및 부품 소요량 감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MES를 통해 현장의 모니터링, 작업내역 추적관리, 상태 파악, 불량관리의 초점을 맞춘 현장 시스템으로 과잉 생산 및 재고 낭비를 줄여 원가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3 FTA활용 유공자 포상 / 2022 글로벌 중소기업 지정서



2019 기업혁신대상 수상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 / 2021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

최근 들어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삼원엑트도 현재 경영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문등록, 생산계획, 실적, 생산, 출하, 제품관리, 공정 관리, 작업관리 등 모든 정보에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가고 있다. 특히 제조실행시스템(MES)과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을 도입하여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제조업 공장 자동화 기술 향상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5G 기술과 협동 로봇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소통하는 CEO

삼원엑트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ESG 경영 혁신 이외에도 노사 문화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수평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해 노사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한다. 여성 직원들을 위한 출산 장려와 육아 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이러한 복지 문화를 인정받아 2021년 부산시로부터 출산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흔히 앓은 시차 출퇴근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연차 사용 권장,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도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노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삼원엑트 상패 수여식



1 2023년 송년의밤 행사 / 2 직원들을 위한 커피차 이벤트 / 3 창립 24주년 행사

성과급 지급 및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며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로자 친화적 기업 문화는 평소 근로자들과 소통을 중요시 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배광호 대표의 경영철학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배광호 대표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정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회사에서 지원해줄 만한 것은 없는지 다양한 대화를 나눈다”며, “꾸준히 직원들과 소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갖춰지면서 회사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적의 배선 절감 솔루션 제공 실현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삼원엑트는 국내 산업 발전 및 노사상생 경영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기업의 가치를 인정 받아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삼원엑트의 꾸준한 성장은 고객 만족을 위한 최적의 배선 절감 솔루션 제공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배광호 대표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제품들 중 IOLINK와 ECOFLEX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현재는 국내외 대부분의 장비에 표준화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삼원엑트의 목표는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가고 있다. 현재 대리점을 운영중인 중국, 인도, 대만, 태국 외에도 미국의 'Proterial', 일본의 '츠바키토모 체인'과 기술적으로 제휴를 맺는 등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기업 공장 자동화를 위한 최적의 배선 절감 솔루션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삼원엑트의 미래가 기대된다. 🌐

2023 부산 워라벨 우수기업 수상





엘이디소프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수여식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라파비 살균 케어 시스템으로 감염으로 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엘이디소프트

엘이디소프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LED 살균조명 개발에 착수하여 2년만에 생산에 성공한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이다. 엘이디소프트가 개발한 라파비 바이오 살균조명은 공기와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99% 제거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을 마치고 독일과 인도 등에 수출되고 있다.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



2023 독일 IFA 전시회에 참가한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

자본금 0원 노트북 1대로 창업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는 2016년 구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본금 0원 노트북 1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LED SOFT 라는 회사명은 LED조명 회사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 담당자들이 회사명을 잘 기억을 못해도 LED는 기억을 했기에 LED를 앞에 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와의 융합한 제품출시를 목표로 LED SOFT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창업 전 4곳의 LED조명 제조사를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거래처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처음에는 주로 관공서, 학교, 공장 등 B2B영업을 통해 유통매출을 올려 사업기반을 다지고 2017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선정되면서 부경대학교 내 부산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산업용 LED 투광등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술발전

조상수 대표는 영업과 매출 상승은 물론 미래의 성공을 위해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초기에 회사 자금이 항상 타이트 했기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예산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였다고 한다. 산업용 LED 투광등을 생산하여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였고 2019년에는 무선통신 제어로 에너지와 밝기를 제어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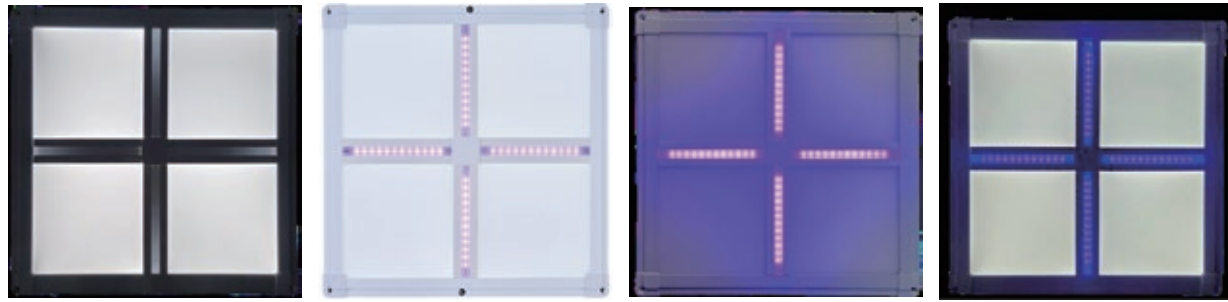
1 조상수 대표와 직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2 LED소프트 공장 내부

IoT 다운라이트 조명 개발에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기계전시회 한국관에 참가하여 많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물인터넷 스마트 조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과 방역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급속히 쏠렸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살균조명 개발의 시작

2020년 코로나19로 엘이디소프트도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 조상수 대표는 점점 레드오션화 되어가고 있는 일반 LED조명보다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보던 중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으니 살균 LED조명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의 관계자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살균조명을 개발 중인 업체가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니 협력하여 공동개발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와 협의를 통해



엘이디소프트의 라파비 바이오 살균조명 RL-360(모델별 제품모습)

살균조명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면서 3개월 만에 살균 LED조명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LED조명 기능과 함께 살균LED가 장착되어 필요시에 공간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99.9%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부산 최초로 개발 성공한 것이다. LED소프트의 고질적 문제는 자금과 인력부족이었는데 협력사와 함께하여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 제품 개발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제품은 빠르게 양산되었고 1차 생산 제품이 모두 완판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살균위생 헬스케어 브랜드 ‘라파비’의 탄생

바이러스 살균조명 개발에 성공하고 초기 판매에 성공 후 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엘이디소프트는 자체 브랜드인 ‘RAPHAB’를 론칭하였다.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는 뜻이고 ‘비’는 BUSAN의 앞글자인 B로부터 따왔다. UV-LED 살균기술은 공기 살균기, 물 살균기 등 응용범위가 넓고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함에 따라 살균위생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라파비는 살균조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살균위생 헬스케어로 확장하는 제품에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때마침 엘이디소프트는 살균LED 조명기술을 부산광역시로부터 인정받아 2021년 부산대표 창업기업 브라이트클럽



가시광살균조명 특허증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표창장



자율주행 UV살균장치 특허증



LED SOFT 상표등록증



UV살균소독기 특허증



학교 급식실 설치된 라파비 살균조명



라파비 살균조명, LED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

으로 선정되었고 곧바로 라파비 살균조명 개발에 착수하였다. 순수 자체기술로 처음 개발하는 제품이었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기존 기술들과 차별화된 기술인 ‘크로스파워 LED(십자형 교차살균기술)’를 특허등록하고 2022년 하반기 부산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에 선정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부산문화회관 화장실 설치에 성공했다. 라파비 살균LED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의 박테리아 살균 시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을 1M 거리에서 24시간안에 99.9% 살균하는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였고 라파비 바이러스 살균조명 RL-360 단일 모델로 경기도 남양주, 대구, 해운대 등 라파비 대리점 개설과 영국 1백만불 수출 MOU계약을 비롯하여 인도, 독일에도 첫 수출에 성공했다. 라파비 살균LED는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러시아 바이어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아 해외 8개국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부산문화회관에 설치된 라파비 살균조명



인도 수출 업무 협약 체결



베트남 수출 업무 협약 체결



일본 수출 업무 협약 체결

UV 크로스파워 공기살균기(RA-450)

- 공기 중 바이러스 96.8% 제거
- 박테리아 곰팡이 냄새 제거
- 시스템 에어컨 내부 장착 기술
- 살균램프 인테리어 효과



라파비 UV 크로스파워 공기살균기가 설치된 모습

라파비와 함께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

라파비의 두 번째 기술은 UV-LED로 공기 중 바이러스를 3분 안에 99.9% 제거하는 기술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명율이 높은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대비해 시민의 호흡기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발하고 있다. 작년 9월 중소기업부 창업 성장과제 1.35억원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재편계획 승인기업(6억원)에 선정되었다. 천정형 에어컨 내부에 설치하여 바이러스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UV공기살균기 개발에 성공하여 부산시설공단 본사 10개소에 설치되어 시범 사용중이며 병원,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장소에도 설치가 되고 판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엘이디소프트 본사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내에 있으며 서면 삼한골든게이트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앞 대우에덴프라자에 전시장이라고 한다. 엘이디소프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작년 5월 M&A 기업으로부터 기업 인수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앞으로 부산을 본사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절하였다고 한다.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는 “1평 남짓 공간에서 창업을 시작했지만, 부산에서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산의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



유럽을 품은 아름다운 해양도시, 청도로 떠나는 골프 여행

글·사진 Ytour&golf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청도(칭다오)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국제적인 분위기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19세기 독일의 식민지였던 청도는 거리 구석구석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빨간 지붕의 유럽식 건축양식과 독일 총영사관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유럽 어느 도시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 독일의 뛰어난 양조기술로 만들어진 '칭다오 맥주'의 원산지인 만큼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이를 함께 맛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청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춥다. 봄과 가을은 온화하고 쾌적하여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이런 쾌적한 기후를 바탕으로, 바다를 보며 골프공을 날리는 독특한 아웃도어 경험까지 제공하면서 새로운 골프 여행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가까워 언제든 훌쩍 다녀와도 부담 없는 골프 여행지인 청도를 소개한다.

Golf Course

영해CC

규모 : 18H / Par 109 / 7,345 Yard

해변과 삼림 골프장의 특색을 하나로 합친 챔피언십 골프장이다. '2015 Asia-Pacific Senior Amateur Championship' 대회가 개최된 곳으로 코스에 대한 것은 이미 정평이 나있으며, 부대시설 또한 수준급 이상으로 갖추어져 있다. 난이도가 다소 있는데 이는 골퍼로 하여금 벙커와 헤저드로 인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홀 공략 시 도전의욕을 심어주는 중상급의 코스라 할 수 있다.



영해CC

도원CC

규모 : 36H / Par 72 / 7,480 Yard

전 세계 3대 철새 도래지인 "지홍탄" 저수지 주변으로 조성된 북방 지역에서 유일한 습지형 골프클럽이다. 저어새, 백로, 두루미, 백조 등 다양한 새들이 강 위를 노닐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페어웨이의 기복 및 바람의 영향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명장이 공동으로 설계한 골프 코스이기도 하다.



도원CC



화산CC

화산CC

규모 : 36H / Par 144 / 14,050 Yard

청도에서 두번째로 개장한 골프클럽으로, 화산CC를 빼고는 청도 골프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골프클럽 중 한 곳이다. 구릉지 코스로서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이며, 한국골퍼에게 다소 익숙한 코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곳은 지금까지 잔디, 조명, 시설 등을 꾸준히 개조하며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otel

그랜드 머큐어 호텔

청도국제엑스포 구역 내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넓은 규모와 시설이 특징이다. 호텔 로비부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며,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천장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있어 뛰어난 자연채광을 볼 수 있다. 중국 호텔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편이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 객실 오션뷰로 청도 바다의 탁 트인 경관을 만날 수 있다.



그랜드 머큐어 호텔

풀만 칭다오 호텔

중국 문화에 프랑스의 우아함을 접목시켜, 독특하고 럭셔리한 시설의 월드체인 5성급 호텔이다. 공항에서 10분, 시내까지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라운딩 이후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기에 좋다. 청도 최대의 모조품 시장인 찌모루 시장, 바다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루쉰 공원, 소어산공원, 잔교 등의 주요 관광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



풀만 칭다오 호텔

추천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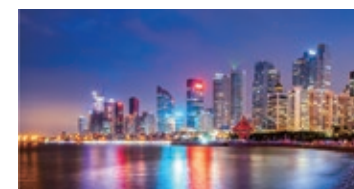
칭다오 맥주 박물관

1903년 독일인들이 지은 맥주 공장의 설비를 보존한 상태로 2001년에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칭다오 맥주의 양조 기술과 맥주 산업 발전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히 칭다오 맥주에 대하여 알 수 있다.



5.4 광장

1919년 5월 4일 북경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제 침략에 대항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친 5.4 운동을 기리고자 조성된 광장이다. 높이 30m, 무게 700톤의 붉은 거대 조형물 '5월의 바람'이 광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찾는 관광객이 많다.



잔교

'청도십경(靑島十景)' 중 제 1경으로 꼽히는 대표 관광지다. 1891년 건설되어 군함을 정박하는 용도로 쓰이다가 1차 세계 대전 때 파괴되었다가 1931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유럽식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도시명의 유래가 된 작은 섬 '소청도'까지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다.



한국 골프의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일본골프에서 많은 것을 가져와 시작된 한국골프도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메이지유신부터 시작된

일본골프의 위상

메이지유신 이후 19세기 말 외국에서 수입된 골프클럽과 공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일본골프는 20세기 초, 1903년 고베CC가 최초로 문을 열면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골프의 보급이 가속화 되었다. 이후 일본골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들이 골프를 즐기는 것이 일상화된 이후 민간으로 확대되며 일본 전역에서 인기스포츠가 되었다. 일본골프는 70년대 세계적인 골프대회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일본골프의 위상을 높였고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골프클럽과 골프의류, 골프공 등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탑브랜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골프로부터 시작된

한국골프의 발전

선진화된 일본골프는 한국골프 초기 큰 영향을 미쳤다. 골프장 문화와 레이아웃에서 관제 시스템, 캐디 시스템, 운영 시스템 등 많은 노하우가 일본골프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 발전한 골프문화와 기술이 1970년대 한국에 도입되어 한국 내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 한국오픈이 최초로 세계대회로 개최되며 한국의 골프 인프라 발전이 시작되었다는게 정설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골프는 여자골프를 중심으로 세계 정상급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현재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골프가 대중화된 대한민국이 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일본브랜드 일색이던 골프용품 의류 골프공 등 골프산업 전반에 일본브랜드가 줄면서 한국브랜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본골프가 잃어버린 30년이후 퇴색되어가는 반면에 한국골프는 MZ세대, 여성골프 등 지속적인 골프인구 유입과 증가로 세계적인 골프강국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어 가히 청출어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본

일본 골프의 품격

얼마 전 일본 시코쿠에 위치한 마츠야마에 에이미현 골프협회와 부산골프협회와 교류행사를 가졌다. 필자도 부산골프협회 이사 자격으로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부산골프협회장님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비공식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골프장인 엘르에르 CC에서 진행된 교류행사에는 에이미현 도지사, 에이미현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골프협회 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에이미현 기관장들이 참석해 우리를 맞아주었다. 골프장에서도 언어의 문제를 고려하여 카트 2대에 조별로 통역을 배치하여 편한 라운드를 준비한 세심한 배려가 보였다. 만찬장에서도 시코쿠 각 지역의 사케를 종류별로 준비하여 소개하는 등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도 느낄 수 있었다. 초대받아 가긴 했으나 별 준비없이 가볍게 간 부산골프협회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올 봄에 예정된 답방 행사 준비에 무게감을 느낄 정도였다. 2박 3일을 함께하며 느낀 일본골프협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골프협회, 지배인협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에이미현청과 상공회의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니어골프육성, 아마추어 대회 지원, 프로 대회 개최 등 골프관련 이벤트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인바운드 관광정책과도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혼연일체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스타트하우스, 필드, 목욕탕 등에서 느낀 일본골퍼의 타인을 배려하는 매너와 에티튜드 또한 아직 한국골프에서는 보지못한 품격있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본

한국골프의 위상

필자의 생각은 그러했으나 행사에 참석한 일본골프 관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한국골프의 급성장세의 이유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젊은 인구의 골프인구로의 유입에 사뭇 부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한일 골프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교류를 통해 한국골프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의지도 보였다. 가히 청출어람이다. 좋은 날 한국에서 재회하게 될 그들에게 한국골프의 위상을 잘 보여줄 것이라 깊게 다짐한다. 🇰🇷

“ **골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선수인 타이거 우즈(Tiger Woods)의 명언**

01
If you believe you can do it, you're halfway there.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02
I'm going to fight to the end in any situation. That's my nature.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성격이다.

03
If people are making fun of you, you're probably doing something right.
남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건 당신이 어떤 일이트 무언가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는 증거다.

04
In golf, you compete against yourself.
골프에서는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05
During practice, I've always told myself that I need to do the impossible things so that during the competition, I can achieve them.
훈련하는 동안 나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말한다. 경기 중에는 그것을 실천한다.

06
I treat each day as a day dedicated to practice on days when I don't win.
나는 승리하지 않은 날은 연습하는 날로 삼는다.

”



2024년 경기침체와 자산버블 사이에서

금리하락과 달러약세, 역설적인 자산시장 거품 만들 것...

국제유가가 변수

글_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진 투자컨설팅 대표

주요 약력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 현) 진 투자컨설팅 대표

방송

- 정철진의 목돈연구소(SBS 러브 FM)
- MBC 뉴스콘서트(2018)

주요저서

- 재테크트렌드 2017~2020
- 자본에 관한 불편한 진실
- 투자 음모를 읽어라



지난 1996년 5월, 분명 이상신호는 있었다. 그해 4월까지만 해도 78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800원을 훌쩍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흥청망청했다. 일선 식당들이나 상점들을 가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룸싸롱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였던 1997년 3월쯤엔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해 있었다. 2007년도 비슷했다. 코스피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집값의 경우 상승 탄력은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고공행진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원화강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2008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고, 그해 가을, 공포스러웠던 세계금융위기는 한국에도 몰아쳤다. 코스피는 장중 898포인트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은 바로 이 경기침체와 자산버블 사이에 놓여있는 것 같다.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5% 밑으로 떨어질까

올 2024년 한국경제를 관통하는 핵심키워드는 역시 '기준금리 인하'이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금리와 달러, 2가지 지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과 경기 예측은 아주 심플해진다. 가령, '금리가 떨어지는가'와 '달러가 약세로 가는가'를 보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금리가 다시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달란다면 올해는 작년에 오지 않았던 '경기침체'로 바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고, 예측했던 수준보다 달러가 더 빠르게 약세로 흘러내린다면 이번엔 역설적인 흐름이 나올 것도 같다. 단적으로 말해 '자산버블(거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와 달러 흐름에 따라서 올해가 1996년과 2007년이 될지, 아니면 바로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침체 상황으로 무너질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먼저 금리를 보자. 지금 세간에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지, 몇 번이나 내리는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건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채권금리)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전 세계의 시장금리라고 평가받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하다. 지난 2007년을 돌아보면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단기간 시중에 유동성이 풀렸고 일종의 자산버블이 발생했다. 따라서 올해 우리는 과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강력한 레벨인 3.5~3.8%를 깨고 하락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달러약세=코스피 급등

이번엔 달러이다. 달러약세 여부는 경영자라면, 또한 투자자라면, 그리고 정부관계자 모두 올해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이다. 자산버블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 인덱스 기준 98~100레벨이 깨지는 지가 중요하다. 이 레벨이 깨지면서 하락하면(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250~1280원 레벨도 무너질 텐데, 그렇다면 자칫 1200원도 깨지는 강력한 달러약세(원화강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기는 곳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주식시장일 것이다. 더 정확히는

미국증시보다는 우리 한국증시, 코스피이다. 과거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대추세를 만들때는 항상 원화강세(달러약세) 시기였다. 점점 약해지는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을 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 국제유가 변수...트럼프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 반대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4.5% 이상으로 튀어오르거나, 달러 역시 약세가 아닌 초강세로 돌변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려면 그 핵심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해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는 상황이다. 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오르게 된다면 미국 연준입장에서도 금리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거자먹기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올해 바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최소한 자산버블이라도 유지하면서 버티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선거인 11월 전까지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83달러선 밑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로 파악되는 물가상승률 또한 제법 잘 관리될 수 있다. 마지막 하나. 올 한해를 관통하는 최고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트럼프 리스크'는 다음에 특집으로 다뤄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만 당장 대비해야 할 것은 친환경사업의 폐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의 시대를 좀 더 이어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기후협약이니, 지구온난화이니, 태양광과 풍력이니, 전기차나 2차전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미국에 엄청나게 매장돼있는 셰일오일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낮은 유가로 구(舊)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며 코로나19 이전 경제체제로 돌아가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공화당 경선이나, 이후 미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굳혀질수록 이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CES 2024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IT·전자제품을 선보이며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ll Together, All on'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1967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는 CES는 올해 모든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150여개국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하며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CES는 새로운 미래의 열쇠로 주목받고있는 AI가 산업과 실생활 모든 영역에 접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대 화두는 AI기술의 접목

이번 CES는 인공지능(AI) 박람회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산업군의 제품에 AI 기술이 접목되었으며, CTA는 혁신상 부문에 AI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AI 기술이 가전·반도체·차·중공업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분야 까지 영역을 넓혀 적용되면서 향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AI가 장착된 것을 뜻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

특히 이번 CES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기업은 혁신상 313개 기업 중 134개를 수상하였고 최고 혁신상 27개 기업 중 8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삼성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슬로건과 함께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며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AI반려로봇 '볼리'를 공개하였으며, LG도 다양한 집안 일을 도와주는 AI반려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소개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슈퍼닐은 AAM(미래항공모빌리티)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공개하였으며, 현대모비스는 휠 360도 회전과 크랩주행이 가능한 '모비온'을 전시하였습니다. SK는 전시관에 수소연료전지로 가는 기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팔은 칵테일을 만들고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는 모습을 시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홍콩 기업 유르토피아(Urtopia)는 챗gpt가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전기자전거를 내놓았습니다.

지역 혁신기업들도 활발히 참여

이번 CES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부산관을 운영하고, 부산 기업도 14개사가 참여하였는데 참가 기업들은 주로 헬스케어, 디지털 플랫폼, 산업용 로봇 분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가 기업 중 코아이(KOAI)는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미세플라스틱을 회수하는 로봇 코봇-S를 공개 하며, 부산 기업 중 유일하게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최초 항만 자율주행 통합시스템을 개발한 (주)토탈소프트뱅크와 접고 펼칠 수 있으며, 스피커가 내장되어있어 어디서나 연주 가능한 모가비 여행용 기타를 개발한 (주)짐 등 참가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CES에서 받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지식의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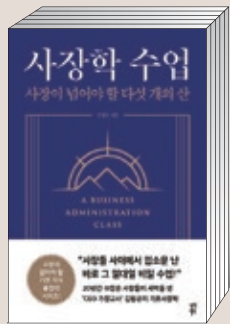


1

사장학 수업

사장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바로 그 일대일 비밀 수업!

김형곤 | 다산북스 | 19,000원



사장들이 사업하겠다는 지인에게 조용히 건네는 명함이 있다. 바로 저자의 명함이다. 실제로 한 사람은 주변의 여러 사장으로부터 똑같은 명함을 받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를 찾아왔다고 했다. 사장들은 도대체 그에게 무엇을 배우기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새벽마다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명쾌한 해답은 수많은 사장과 사고교락을 함께하며 쌓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다. 이 책은 사장이 묻고 저자가 답하며 진행되었던 새벽녘의 '일대일 비밀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쓰였다. 앞서 시작해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어낸 사장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고민했는지, 무엇을 배워 난관의 돌파구를 찾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수업을 청강해 보자. '이건 나와 내 사업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얻어, 내 사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을 배웠다

일론 머스크처럼 생각하고 테슬라처럼 해내는 법

박규하 | 비즈니스북스 | 17,000원

이 책은 애플과 테슬라에서 동시에 커리어를 쌓은 한국인이 쓴 '테슬라에서 일하는 법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한국 토종 엔지니어로서 LG화학에 입사, 예일대 MBA 유학, 이후 테슬라 인턴십을 거쳐 애플에 이어 다시금 테슬라로 돌아와 배터리 구매 그룹장이 된 미스터 테슬라의 실리콘밸리 고군분투기를 담아냈다. '제1원칙으로 사고하라', 'What이 아닌 Why로 질문하라', '어제의 계획을 오늘 180도 바꿔라', '오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하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를 뛰어넘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져라' 등 내부자만 알 수 있는 테슬라식 성공원칙, 성장원리 그리고 경영철학 등을 제대로 엿볼 수 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서 실리콘밸리에 무작정 뛰어든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은 미래와 꿈을 향해 뛰어드는 일을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3

숫자 없는 경제학

예술, 역사, 철학에 비춰 보는
화폐와 금융 이야기

차현진 | 메디치미디어 | 20,000원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 서적이 아니다. 경제학 서적에 흔히 등장하는 통계나 수식이 없다. 숫자와 공식으로 가득 찬 일반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 이론을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데 내용의 대부분을 채운다. 그렇기에 경제 이론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그 이론을 관철한 사람의 내면세계와 같은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 그 결과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경제학 책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려면 경제문제는 경제학 교과서를 뛰어넘어 생각해야 한다. 이 책은 경제 현상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살피면서 관계된 인물들의 열정과 고민을 포착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숫자 없는 경제학》에서는 소설과 드라마, 명화, 철학 등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경제문제에 접근한다. 이를 중심으로 경제 원리와 경제사의 교훈을 살펴본다.

4

스토리테크 전쟁

기술과 데이터가 촉발한
콘텐츠 비즈니스의 거대한 진화

류현정 | 리더스북 | 19,000원

실리콘밸리와 판교가 스토리를 파는 시대로 아마존, 애플, 구글, 쿠팡, 네이버 등 최고 기술 기업들이 잠전한 현대의 스토리 전쟁은 '스토리테크(Storytech)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스토리테크란 스토리(story)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웹툰·웹소설에서 영화·드라마·예능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둘러싼 기술적 진화를 뜻한다. 기술 없이 스토리를 팔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 특파원 출신 IT 전문 기자가 100조 규모의 스토리 비즈니스 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와 콘텐츠 산업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한 권에 집약해냈다. 기술과 데이터로 무장한 빅 테크 기업의 대공세와 위기를 맞은 전통의 스토리 강자 할리우드 모델의 대응 전략,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K 모델의 가세로 시사각각 변화하는 전쟁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5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의사이자 경제학자가 전하는
삶과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법

김현철 | 김영사 | 17,800원

한 개인의 성취는 어떻게 결정될까?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성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다. 개인의 성취가 운에 달려 있고 그 운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운 나쁜 사람의 삶은 누가 도와 줄 것인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책으로,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의 조건에 대해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한다. 📖

대선조선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 자국 근로자 격려 위해 대선조선 방문



리핀 대사관 노무관실 노무관 MA.CELESTE M.VALDERRAMA 님

대선조선은 1월 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이 자국 용접공들의 교육훈련 과정, 작업현장 및 거주시설을 돌아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선조선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은 작년 12월 조선업의 인력난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원하는 'E-7-3(조선숙련공비자) 비자를 통해 총 94명의 필리핀 용접공을 채용하였다. 이들은 대선조선 선각 작업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20여명은 적응기간을 마치고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선조선은 우수한 해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한국과 해외 현지에서 직접면담과 선별업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였으며, 입국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선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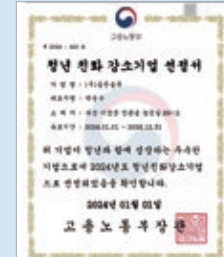
부산을 담은 붓산식 소주 신제품 '강알리' 출시

대선주조는 1월 3일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신제품 '강알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알리'는 광안리의 부산식 발음에서 착안했으며 제품 라벨도 투명병에 광안리를 연상시키는 직관적인 이미지들로 꾸며졌으며, 대선주조의 시그니처 파도 로고는 제품명과 라벨 곳곳에 활용되었다. 신제품 '강알리'는 100% 국내산 쌀로 빚은 증류주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깊은 맛과 깔끔한 목 넘김을 자랑한다. 또한 국내 주류 트렌드에 맞춘 도수 16도 슈거프리 제품이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는 "강알리는 급변하는 주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오랜기간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 완성한 제품만큼 2024년 주류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6년 연속 선정



골든블루는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이 높고 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측면에서 우수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골든블루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성리츠

웰리빙헬스케어 전문가 그룹과 대한메포츠협회 업무협약 체결



경성리츠 웰리빙헬스케어 전문가 그룹은 1월 11일 부산진구 범천동 아카이브4h 실버텔에서 대한메포츠협회와 액티브 시니어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 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웰리빙전문가그룹은 대한메포츠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검사와 의사 처방을 기반으로 운동관리와 식단 관리, 각종 성인병 추적 관리, 근력운동 수업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액티브 시니어 입주 건강 관리 상품을 아카이브4h 실버텔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경성리츠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BNK금융그룹

'BNK사회공헌의 날' 개최



BNK금융그룹은 1월 20일 그룹 전체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부산과 서울, 울산, 경남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2천여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총 2만여 개의 생필품 꾸러미와 학용품 세트는 설 명절 이전에 취약계층 및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포장작업이 완료된 의류는 베트남 현지의 취약 계층에 전달 예정이다. 빈대인 회장은 "앞으로도 'BNK'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고객중심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동원개발

이웃사랑성금 1억원 기부 및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 달성



동원개발은 1월 1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1억원을 기부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동원개발은 2021년 3억원을 기부하고 매년 1억원씩 기부를 하며 현재 누적 기부금액 5억 원을 달성하여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이 되었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과 빈곤층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은 "동원개발의 성장에는 부산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소외 계층 지원 등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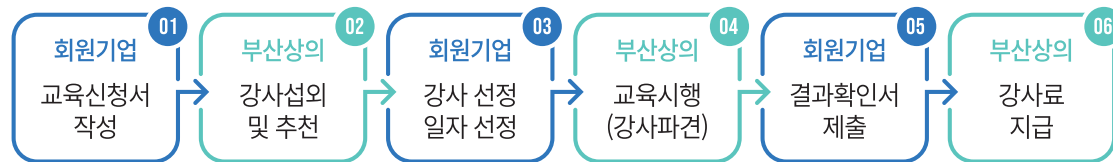
2024년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방문교육 지원 안내

회원기업 방문교육이란 당연회비 완납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 교육주제별 맞춤형 강사 파견을 지원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

- ☑ 신청시기: 교육예정 최소 일주일전~최대 한달전
- ☑ 신청대상: 부산상공회의소 당연회비 완납업체(연간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소 2시간 ~ 최대 8시간)
- ☑ 신청방법: 방문교육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송부(zhouyong@korcham.net)
 - ※ 신청서 양식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www.bcci.or.kr>) 교육 게시판 참조
 - ※ 신청서 작성 시 휴대폰 연락처 필히 작성!
 - ※ 강의 주제 및 강사는 첨부파일 참고, 미기재시 주제 및 일자에 맞춰 강사님 배정
- ☑ 문의처 및 메일 수신처: 회원사업본부 서주영(051-990-7065, zhouyong@korcham.net)

신청절차



교육분야

분야	세부모듈
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퇴직연금 등
인사·조직	조직활성화, 변화혁신, 리더십, 조직 내 소통, 인간관계, NCS활용방법 등
서비스·마케팅	이미지메이킹, 비즈니스매너, 직장예절, 보이스컨설팅,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품질·안전관리	현장혁신, 3정5S, 품질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ISO관련 등
개인정보·사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내보안교육, 해킹대비 PC관리 등
스트레스·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직장인 건강관리, 명상요법, 마시지기법 등
인문·CS	한국과학사, 서양미술사,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금융·재테크	재무 설계, 은퇴설계, 자산관리, 재테크 등
기타	외부 교육기관(엑스퍼트컨설팅, 휴먼인컨설팅)

빠른진단과 동시에 설치까지 45일내 완료! 공압에너지 100일 다이어트 프로젝트!

스마트에어와 함께하세요!

에어컴프레서 전문기업 ㈜스마트에어

정책자금
신청지원

통합제어
시스템

인버터
컴프레서

ESG
경영지원

최대 50% 에너지 절감의 기회를 찾다!

아트라스콥코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

최고의 성능, 고효율 프리미엄 컴프레서

GA VSD+



통합제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최적 운전 압축 공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제공



무급유식 컴프레서(오일프리_ZT)

식품, 2차전지 등 첨단설비 효율적 사용 OIL OCLASS 높은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비용 최소화



급유식 컴프레서(7-90KW)

가혹한 조건에도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스크류 컴프레서



일체형 컴프레서

간편한 설치, 협소한 공간 설치용이 냉동식 드라이어 내장형, 탱크 일체형 컴프레서



합리적인 가격, 고효율 스탠다드 컴프레서

GA VSDIPM



질소발생기

안정적 운영관리, 높은 에너지 효율



II TRAK(정밀진단 측정도구), Air technical center

Total 컨설팅 엔지니어링 제공



진공펌프

인버터 진공펌프는 최신 제어기술 적용 반도체 및 첨단설비에 최적화된 장비



Air Quality Solution

2차 전지용 탄소정제기 및 필터 (이산화탄소 및 수분제거 100%)



2024년 스마트에어 지원사업 신청문의

Tel. 051-913-0244 Fax. 010-9164-0244 E-mail. biz@smart-air.co.kr Homepage. www.smart-air.co.kr

Atlas Copco

공식대리점



현장실습-일학습병행 연계 과정 참여기업 모집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학습(현장훈련 등)을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로 고용률 제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IPP형 일학습병행 :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전공분야 기업에서 장·단기현장실습(3학년)을 거쳐 일학습병행(4학년) 수행

- **참여효과** :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절감,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 **정부지원** : 현장훈련 비용, 훈련지원금, 기업 전담인력 수당, 실습지원비 등 재정적 지원 조달청_물품제조, 입찰 가점 / 고용노동부_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안전보건공단_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 병무청_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등 행정적 지원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50인 이상 & 신용 B등급 이상, 강소기업, 명장기업 등 정부 인증 우수 사업장 우대

YouTube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블로그 검색

문의 및 상담 051.663.5612
pethsas@ks.ac.kr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5층	48평(158.4㎡)	29평(95.7㎡)	62,400,000	624,000	1,296,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10층	47평(155.4㎡)	28.4평(93.8㎡)	61,100,000	611,000	1,269,000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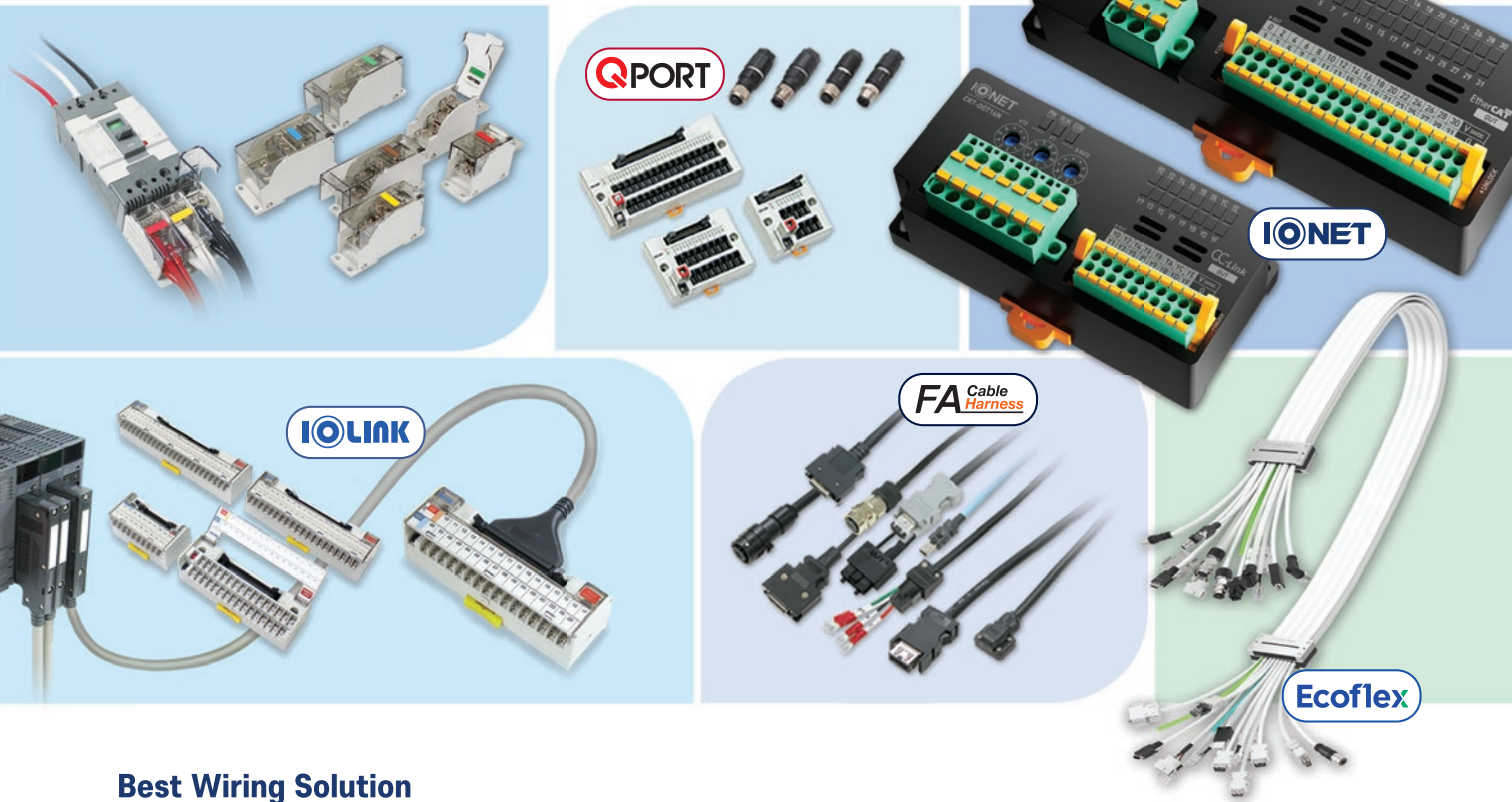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FA 네트워크 · 배선기기 토탈 솔루션

삼원 ACT(주)

삼원엑트는 최적의 배선 절감 솔루션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Best Wiring Solution

FA 배선 분야의 설계 컨설팅부터 제조, 생산 및 품질 관리, 신뢰성 검증, 제품 및 자재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국내 산업 자동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제품을 국산화하여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IO 배선
절감 솔루션

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무분진
가동 케이블 시스템

센서 & 필드버스
접속 솔루션

FA 케이블
하네스 솔루션